

은혜와 진리소식

2026년 7월 19일 [매주발행] / 발행인 : 조용목

은혜와진리교회 www.gntc.net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 (031)443-3731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314번길 3 ☎ (031)225-3731

· 안산시 화랑로 303 ☎ (031)486-3731

제1965호

1982년 8월 8일 창간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 1:17)



(간증)

“저를 불러 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 오 영 예 -

저는 이른 나이에 결혼하여 아이들을 키우며 일도 하면서 힘들게 생활하였습니다. 삶이 매우 고단하고 의지할 데가 없을 때는 전도하던 분의 말을 떠올리며 ‘교회에 한 번 가볼까?’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피곤하여 깊이 잠들었는데, 왼손의 엄지와 검지의 손가락 사이에 ‘찌릿’하고 강한 전류가 흐르는 것 같더니 누군가 저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자하면서도 위엄 있는,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음성이었습니다. 그 목소리에 깜짝 놀라서 깨어 보니 일요일 아침 9시 30분이었습니다. 그때는 수원에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어나자마자 아이들을 챙겨서 동수원사거리의 은혜와진리교회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세상에서 느껴본 적이 없는 평안이 저의 마음속에 찾아왔습니다. 저를 부르시고 깨우시던 분이 저를 품에 안아주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척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성경책과 찬송가부터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테이프도 구입하여 일하면서 듣고 따라 불렀습니다. 아이들을 교회학교 유치부에 등록시키고,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여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게 되었고, 같은 구역의 권사님을 따라 성가대에서 봉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부업 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일일학습지를 가지고 오시는 선생님이 아닌 다른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쉬는 날이라 대신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에게 커피를 타 드리고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혹시 교회에 다니세요?”하고 물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정도로 성경 지식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전도하도록 성령께서 담력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학습지 회사의 지점장이셨습니다. “저는 옛날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절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편해서요”라고 하였습니다.

“저랑 같이 우리 교회에 가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시지 않겠어요?”라고 권했더니 “오늘 이 말을 들으려고 그랬나, 차를 타고 여기 오는데 이상하게 그동안 잊고 있었던 주기도문이 자꾸 생각나서 되뇌면서 왔거든요. 왜 그럴까 했는데...”라고 하였습니다. “내일이 주일이니까, 내일 저랑 같이 교회에 가요”라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같이 예배를 드리고 교구실로 가 전도사님에게 기도를 받은 후에 그분이 집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날 조용목 목사님의 설교에 감화되고 감동을 받아 집에 가자마자 불교 서적을 모두 없앴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우리 교회와 속한 구역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더니 신학교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일을 하는 도중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이상해서 구역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하나님이 많이 예배하시나봐요”하시고는,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며 부럽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성경구절을 수놓아 액자를 만들어 거실에 걸어놓았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위로 받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저의 교회생활을 도와주신 권사님께 제대로 인사를 못 드리고 갑자기 화성시 남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들을 겪고 바쁘게 생활하면서 점차 예배와 교회생활을 소홀히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잘 자라고 생활도 차츰 안정되었지만 저는 교회와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가정으로 시집간 딸이 사위와 함께 저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딸과 사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속 저를 부르셨습니다.

‘오랜 세월을 힘겹게 살아왔으니, 이제는 좀 쉬어도 되겠지’하고 생각할 때에 갑자기 육신의 병고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몸에 이상이 생겨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좀 이상한데 아직은 확실치 않다’며 6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진단에 의문을 품은 딸이 인터넷으로 대학병원 교수님들과 소통하더니 검사받은 자료를 서울대학교 병원에 보내 판독을 의뢰하였습니다. 위급한 상태의 암으로, 다른 암에 비해 전이 속도가 매우 빠른 ‘자궁내막 육종암’이라는 진단과 함께 즉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가족들은 제가 크게 충격을 받을까봐 단순히 자궁에 난 혹을 제거하는 수술이라고 하였습니다.

입원한 다음날로 수술이 결정되었습니다. 입원한 날에 딸을 불러서 의료진 일곱 분이 검사 결과를 놓고 의논을 하면서 상태를 설명해 주었는데, 암이 이미 온몸에 전이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여 딸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딸은 병실에서 잠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밤새도

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들어 있었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밝은 빛이 병실 앞에서 저를 향하여 비추는 것을 딸이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도 선명한 그 빛을 보는 순간 딸의 마음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감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임하므로 가족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저도 잠들기 전에,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용서와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들의 어려운 생활 형편이 마음에 걸려서 아들을 위해서 더 간절하게 기도하였습니다.

수술하기 위해 개복하여 확인해 보니 예상했던 암의 모습이 아니어서 교수님이 수술실 밖으로 나와 “암이 아닙니다”라고 말해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기다리던 가족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크게 외쳤다고 하였습니다. 수술 후 조직 검사는 해야 한다가에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자궁 안에 있던 혹에서 작은 암세포가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다른 장기로 전이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궁적출 수술을 통해 암세포를 완전히 제거하고, 추가적인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 없이 경과만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저의 생명만 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암 진단 보험금을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아들에게 큰 도움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병고를 통해서, 딸과 사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의 병을 빨리 발견하게 된 것, 딸이 지혜롭고 담대하게 행한 것, 교수님들 눈에 여러 군데 암세포가 퍼져 있는 것처럼 보여 즉각 수술을 받게 되고 또 수술이 잘 된 것,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저와 우리 가정을 굳게 붙들고 계셨고 자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은 삶이 무척 힘들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먼저 저를 찾아오셔서 주신 사랑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저의 생명을 지켜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당회장 조용목 목사님께서 지난 2월과 3월의 주일예배에서 이 말씀을 본문으로 6주 동안 연속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시는 말씀에 크고 깊은 감동을 받으면서 교회에 나온지 얼마 안되었던 그때가 어제 일처럼 생각났습니다.

수술 후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저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여 평안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기검사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삶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구역공과

제4권 (1단원 : 예수님의 비유)

(제7과) 열 처녀의 비유

- 본문 : 마태복음 25:1-13

• 요절 :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마 24:44)

• 찬송 : 162장(새찬송가 175장), 163장(새찬송가 176장)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결혼은 인륜대사(人倫大事) 중에서 가장 신성하고 기쁜 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신랑, 신부와 하객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워하는 혼인 예식은 기쁨으로 충만한 천국을 상징하기에 적합합니다. 더구나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대망하는 사람들의 신앙 상태를 설명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혼인 잔치를 예로 드신 까닭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밤중에 아무도 뜻하지 아니한 때에 갑자기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신부의 친구들은 신랑을 맞이하여 함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 등불을 들고 길에 나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때 등불을 밝히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들은 그 잔치에 참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마중 나가는 처녀들은 반드시 등과 신랑이 올 때까지 켜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열 처녀의 비유’가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봅시다.

1. 주님은 예상치 못한 때에 다시 오십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 처녀는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했고,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대하던 신랑이 마침내 온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열 처녀는 모든 신자를 상징합니다. 또 신랑이 아무도 예상치 못한 때에 신부를 데리러 오듯이, 예수님도 뜻하지 않은 때에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요 14:2하,3)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를 예비하시고 곧 그곳으로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 이 땅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 재림하실런지 그날과 그때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며,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막 13:32).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신구약 성경에 빈번하게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재림의 당사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친히 여러 번 강조하신 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 5:18)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성경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2. 성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다 졸며 잠자던 열 처녀는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에 다 깨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같이 준비하고 있었기에 얼른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등불이 꺼져가는 데다가 보충할 기름을 갖고 있지 못했으므로 신랑을 맞으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고 부탁했으나 슬기로운 처녀들은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며 거절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사러 허둥지둥 달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신랑은 등을 환하게 밝혀 들고 마중 나온 처녀들과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갔고 곧 문이 닫혔습니다.

이 비유에서 슬기로운 처녀들과 어리석은 처녀들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랑이 올 때까지 켜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을 고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기름은 행함있는 믿음과 성령 충만한 삶을 말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마 7:21)고 하였고, 또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엡 5:18)고 하였습니다.

애석하게도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신자들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던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단장하여 날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3. 구원의 은혜를 등한히 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기름을 사러 갔던 처녀들이 허겁지겁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라고 애원했으나, 신랑의 대답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회는 무한정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주님의 재림과 동시에 끝나고 맙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뜻뜻미지근한 신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늦기 전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 재미에 취해서 잠자고 있는 신자들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1~14)고 하시는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있다면 속히 전도하여 다 함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후 6:2하)라고 하였듯이, 더 지체하다가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놓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시대의 모든 징조는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소리쳐 알리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세월을 아껴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신랑되신 예수님은 가까운 장래에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십니다. 그 때에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라야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 천국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들림받기 위해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도록 합시다.



예수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은혜와 진리교회

안양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T.031-443-3731~2, 446-9184

수원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314번길 3 T.031-225-3731, 234-3732

안산 : 경기도 안산시 화랑로 303 (고잔동) T.031-486-3731~2

과천 : 경기도 과천시 별양상가2로 41 (별양동) T.02-502-3731

시흥 : 경기도 시흥시 신천로 44번안길 20-1 (신천동) T.031-318-3731~2

광명 : 경기도 광명시 소하로109번길 13-18 T.02-894-3731

부평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북로 237 (청천동) T.032-507-3731~2

부곡 : 경기도 의왕시 까치골1길 25 (삼동) T.031-462-3731

판교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35 T.031-716-3743, 716-7832

영등포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다길 5 T.02-2632-3731

산본 :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323번길 10-18, 6층 T.031-395-8227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712번길 9 T.032-469-3742

부천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경인로3번길 6 (송내동) T.032-652-3731~2

일산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대로 866 (중산동) T.031-906-3731

시화 : 경기도 시흥시 서촌상가3길 17 (정왕동) T.031-497-3732

영통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418 (영통동) T.031-205-3732

구리 : 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16번길6 (인창동) T.031-567-3731

포일 : 경기도 의왕시 내손로 70-9 (내손동) T.031-422-9200

전원 :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왕림2길 76 (세곡리) T.031-298-3739

전원(수양관,본관)